

# 리눅스용 데이터베이스 출시 경쟁

최근 인포믹스, 오라클, 인터베이스 등 세계 주요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리눅스 지원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품과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인포믹스가 리눅스용 DB를 발표하면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라클, 컴퓨터 어쏘시에이트 등도 리눅스용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민식 기자>

리눅스란 소스 코드가 완전 공개된 유닉스 변형판 운영체제로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중대형급 이상에서 사용되는 유닉스와는 달리 리눅스는 일반 PC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유닉스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난 91년 Linus Torvalds라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생이 개발했으며 91년 11월 버전 0.10이 공개되면서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공개 이후 많은 컴퓨터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성능개선 참여로 강력한 네트워킹 기능을 갖게 되면서 사용자 기반을 급속히 넓히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환경의 X와 텍스트 형태의 언어, TEX, TCP/IP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응용 프로그램들 역시 다수 개발돼있기 때문에 유닉스와 거의 유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로부터 폭넓은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공개 OS의 세력 확장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 인포믹스의 공격적 시장 공략

인포믹스는 최근 IWUC '98 행사장에서 리눅스용 데이터베이스 출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현재 IDN에서 리눅스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http://www.informix.com/idn>)

현재 리눅스는 Caldera, S.u.S.E, Red Hat 3종이 있는데 인포믹스는 Caldera와 S.u.S.E용 제품을 발표하였고 Red hot 제품은 개발중이다.

인포믹스는 국내 Red hat 리눅스 총판격인 리눅스코리아 및 PC통신 유저그룹들을 통해 국내 매니아들에게도 무상배포하며 시장공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포믹스의 서버제품 마케팅 담당 수석 관리자인 스티브 램브라이트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제 인포믹스 사용자 그룹의 리눅스용 DB 출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인포믹스 제품에 대한 새로운 개발자 층이 형성되었다. Informix-SE는 안정성, 탄력성, 액세스 기능 등이 완벽하게 지원되는 리눅스의 보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포믹스는 저렴한 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통합할 수 있고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구성과 관리가 간편한 고성능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비즈니스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포믹스의 이런 공격적 시장 공략에 따라 세계 최대의 DB업체인 오라클도 리눅스용 오라클 8과 재고관리 등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리눅스 버전을 내년초에 출시하기로 발표했다.

또 인터베이스는 최근 리눅스용 '인터베이스 4'를 무료 공급한 데 이어 오는 9월엔 상용판인 '인터베이스 5'를 출시할 계획이고 컴퓨터 어소시에이츠(CA)는 리눅스 이용자들이 기간 업무용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있도록 오는 9월 '인그레스 II'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닉스의 대체 가능제품으로까지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데스크톱 OS시장에서의 경쟁에 필요한 설치의 간편성과 사용 편리성, 응용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여러 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리눅스 사용자는 대부분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컴퓨터 전문가라는 사실이 이같은 사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따라서 리눅스가 실질적으로 윈도 지배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선 일반 컴퓨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리눅스 지원업체들도 최근 회의를 갖고 앞으로 리눅스를 전문가 집단이 즐기는 것에서 일반 소비

이같은 DB업체들의 리눅스 제품 출시는 리눅스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이며 기업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NT에 종속되길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 리눅스 발전 가능성 높다

이같은 DB업체들의 리눅스 제품 출시는 리눅스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이며 기업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NT에 종속되길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같은 리눅스 제품 출시 경향은 리눅스용 DB 제품 출시에 앞서 캐나다 코렐이 리눅스용 워드퍼펙트를 발표하였고 칼데라와 레드햇 등 일부 업체는 문서작성, 표계산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저가의 리눅스용 오피스 슈트를 출시하는 등 상당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리눅스 지원 대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리눅스는 현재 윈도의 적수로 평가하기엔 이르며 다만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리눅스는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과 웹 서버를 운용하는 네트워크 OS로서는 NT나 기존

자들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OS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리눅스는 앞으로 인텔의 차세대 칩인 머세드 지원 및 고도의 대칭형 멀티프로세싱 기능 등을 부가받으면서 컴퓨터 지원 디자인(CAD) 등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 리눅스 매니아는 천만명, 국내에서도 10만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제품 출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